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적 경향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Post-national Trends in 21st Century Fashion Based on Multiculturalism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4월 19일), 수정일(2010년 6월 28일), 게재확정일(2010년 7월 5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t-national trends of the 21st century fashion that has embraced multiculturalism.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view to explor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nd the background of post-national phenomena appearing in contemporary fashion. In addition, as a case study, the author used local and foreign fashion magazines and collection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09, in addition to other related materials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 objective was to analyze photographic materials in which post-national features are reflected. From this study, the post-national trends in 21st century fashion that adopted multiculturalism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oriental culture is more actively embraced. In the past, the tendency of embracing the oriental culture was mainly developed with a focus on China and Japan, but recently the tendency has spread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national/ethnic minorities that include Mongolians and Tibetans that is present in more active ways that reflect oriental sentiment and philosophy as well as adopts simple images. Second, 21st century fashion based on multiculturalism broadens the interest in the understanding of nations in the regions of Africa, Middle East, and South America and uses regional folk costumes or indigenous characteristics to create new things instead of staying within a fixed paradigm. Third, as horizontal transfer is involved in ways of looking at culture, 21st century fashion shows a post-national tendency to use regional cultures and folk costumes of the occidental world that includes North and West Europe in addition to non-mainstream regions (as considered so far). Fourth, dress elements of many heterogeneous national cultures are combined to create multinational images difficult to define in terms of a specific national culture or clothing style.

Key words: Multiculturalism, Post nationalism, Fashion; 다문화주의, 탈 민족, 패션

I.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화된 생활방식과 개성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초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사회,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행위의 모든 면에서 경계 허물기를 특징으로 하여 주류문화 없이 모든

나라,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의 시대가 되었고, 각 나라 및 민족의 고유문화가 아닌 타 문화간의 교류와 결합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후반부터 발흥한 포스트모던의 문화인식론에서 기인한 것으로 탈 중심적 인식론은 타 문화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방식을 갖는데 기여했고, 급속한 세계화의 경향 역시 다문화주의나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y6341@sunchon.ac.kr

후기식민주의로 그 관심을 돌리게 하였으며 문화의 이동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특히 첨단 과학과 기술에 의한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은 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질적 문화들 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고 타인과 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촉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각기 상이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단순히 타 문화에 흡수되거나 자문화로 통합되는 식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고 함께 뒤섞이는 새로운 탈 중심의 혼성문화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접촉에 대한 열린 태도는 패션에 있어서도 타 문화의 인식과 수용으로 연결되어 자국의 문화와 혼합됨으로써 새롭고 독특한 다양성을 도출하고 있다. 즉 현대패션은 각 나라의 문화체계를 고립시키지 않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 및 이식현상을 통해 다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탈 중심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각 민족 특유의 민속복식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신비감 그리고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패션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김지연, 이경희, 2004).

다른 두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오리엔탈, 에스닉, 퓨전, 크로스오버, 질층주의 등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고, 또 다른 스타일간의 결합보다 확대된 방식의 결합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현대사회의 중심문화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의 패션현상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체적인 특징인 해체와 절충, 불확정성 및 퓨전과 하이브리드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었고(김윤주, 1998; 박명희, 1999; 양희영, 양숙희, 2000; 이정후, 1998; 임영자, 한윤숙, 2001; 정현숙, 양숙희, 1997), 동양이나 오리엔탈 복식에 관한 연구와 인도,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등 특정 국가나 문화권의 전통 복식요소에 관한 연구(권유진, 1997; 김선영, 2006; 김수경, 2003; 김정아 외, 2005; 박은주, 은영자, 1999; 임영자, 김선영, 2000; 최호정, 2006, 2007)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갈등 극복 이론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대두되어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 계층이 서로 동등하게 공존하여 표현되는 탈 민족, 탈 국적의 현상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연구는 20세기 말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적인 요소를 페미니즘, 제3세계, 테크놀로지로 한정된 연구(최

혜정, 1999)와 다문화시대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패션에 관한 연구(양취경, 김경란, 2005)만으로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적인 요소를 민족적 측면으로 한정하고 21세기 탈 민족적 패션의 경향을 고찰하였다. 연구목적은 첫째, 다문화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현대패션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둘째, 다문화사회 안에서 탈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현대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며, 셋째, 타 민족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보다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 민족현상의 배경을 고찰하고,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탈 민족적 경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0S/S부터 2009F/W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이용하였다. 작품 선정은 2000S/S부터 2009F/W까지의 기간 동안 Collections, GAP, Fashion News, Mode&Mode, Vogue 등 국내의 패션잡지 및 컬렉션을,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탈 민족적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 426점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중 유사이미지이거나 모호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품을 제외한 총 305점을 분석하였다. 작품 선정과 분석에 있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의상학 전공자 3인과 함께 하였으며, 의복의 아이템이나 장신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착장방법 등 탈 민족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성립과 개념

Pieterse(1984)가 세계화 시대의 문화란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재생산되기만 하는 일방적인 동질화의 과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혼재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혼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의 세계화는 동일화, 지역화, 혼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문화만이 지배문화로 정의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서연, 박길순, 2001).

탈 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반

목과 적대적인 거리구획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보와 경제, 그리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탈 민족, 탈 국가화 현상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제화, 세계화 현상의 한편에서는 ‘민족연계의 강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을 점점 뚜렷하게 강화시키고 있음은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다. 탈 냉전 이후 전반적인 국가경계의 약화현상 속에서도 이와는 반대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종족 내지는 민족 등의 인간집단들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면서 동일한 인간집단들 간의 유대의식은 국경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더욱 확대된 공간으로 그들 간의 연대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조정남, 2007).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대두된 다문화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다문화주의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는 먼저 하나의 사회학적 사실로서 현 서구사회가 인종, 언어, 종교, 계급, 성, 이데올로기, 민족성, 국가 등 다양한 관점과 요소에 있어서의 현저한 문화적 차이를 갖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서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 정치적 원리로서 제시된 데 있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원리 또는 정책의 구상이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사회문제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본목표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내포한다(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부각되게 된 것은 캐나다 정부가 각 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수십 종류의 문화를 단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 민족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캐나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의 국시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하고 부터이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90년대 초 미국에서 하나의 철학적 사조로 등장한다. 특히 프랑스는 다문화주의를 ‘상이성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하여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Barber, 1993).

철학자 Kimlicka는 다문화사회를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다민족사회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

하는 복합인종사회로 구분하였다(마르코, 1997/2005). 즉 오늘날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첫째, 유럽국가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식민지 경영과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다. 둘째, 국가의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 나라였던 캐나다, 미국 등의 경우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겨난 산물로 간주한다. Gates(1993)가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에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 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끊임 없이 변모한다고 하였듯이,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문화 간의 유동적인 균형을 조장하고 보존하며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충돌과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끊임 없이 변형시켜 나가고자 한다(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기본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동등한 공존을 주장하며,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으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평적 시각에 의한 동서문화의 공존도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과 여러 학자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 민족현상의 배경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전개양상에 사상적 원류를 제공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고경향은 인간 주체가 집중되어지던 중심의 파괴와 전통적인 관념 및 규칙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가져왔다. 과거의 의미작용에서 벗어난 이미

<표 1>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의 개념
J. Pieterse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혼재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혼성화의 과정
W. Kimlicka	다문화사회를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다민족 사회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하는 복합인종사회로 구분
H. L. Gates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겨난 산물로 간주
W. Welsch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동질적인 형성체로 이해하여 여전히 단일문화라는 관습적인 문화이해의 계열에 놓임. 즉 다양한 문화들의 병존을 의미
A. Said	이 세상에 순수한 문화는 없다고 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에 근본을 둔 다문화주의를 언급
K. C. Boey	세계성과 지역성의 혼합을 의미

지들이 새로운 질서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와 차별화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McGuigan, 1999).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연장도 완전한 배제도 아니며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그 내부에서 해체 또는 탈 구축하는 것이다(권정숙, 2004).

Derrida가 구조개념을 비판하면서 현대비평용어로 등장하게 된 탈 중심성은 ‘원리들로부터의 사유’를 주장하는 형이상학의 인식적인 지배체제인 불변의 진리와 기초, 규칙 등을 수용하는 중심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맨프레드, 1989/1998). Derrida는 그의 논문 『인문과학 언술 행위에서의 구조, 기호, 작용』에서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라고 중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전통적 의미의 중심이 구조의 기원, 균형유지, 조직원리의 핵심으로 구조의 자유작용을 제한하는 반면, Derrida는 중심을 구조의 자유작용을 개방시키는 균형현상인 탈 중심화로 간주하였다(윤호병, 1992). 탈 중심화는 중심주의와 일원성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데 대신 주체를 해체하고 그동안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해온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타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양성, 상대성, 복수성과 다중성을 추구하는 열린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정세희, 2008). 즉 서구적 중심주의에 따른 가치관이 제기하는 중심주의적 실체와 이에 의해 소외된 타자의 실제 모두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서로의 상호연관, 상호작용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유방식,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에 정당한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신승환, 1999).

현대의 사회문화는 이러한 탈 중심화의 사유를 통해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나 계급, 젠더, 인종, 문화 등의 측면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피지배계층, 빈곤층, 여성과 성적 소수자, 비서구민족, 유색인과 혼혈인, 주변과 하위문화 등의 미적가치를 재인식하게 하

는 등 서로 다른 이념과 상충적인 생활원리 및 인식원리들이 자유로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의 탈 중심적 특성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지닌 현대패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문화 간, 그리고 시, 공간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혼성을 더해 다중 정체성과 다문화주의를 야기하였다.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를 무력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뉴 미디어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별국가와 지역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시적인 정보전달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역적인 거리나 국경과 같은 기존의 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시장과 문화권으로 형성하게 하였다. 이는 타 지역이나 타 문화권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 세계인이 동시에 공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 문화권에 대한 폭 넓은 수용의 태도를 갖게 하였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세부적인 다국적 기업의 변성과 국제적인 금융흐름 등 경제교류의 확대 또한 지역이나 국경세계를 고 퇴색하게 한 하나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에서의 전쟁이나 분쟁을 피해서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 떠도는 이른바 난민(難民)의 증가는 물론 더 좋은 돈벌이를 위해 외국의 값비싼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인적 교류 또한 국경을 허무는 중요한 배경 중 한 부분이다(조정남, 2007). 이렇듯 정보와 돈, 사람들의 교류확대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지역 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약화 내지는 단축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현대사회의 세계화 현상이며, 탈 민족, 탈 국적 현상을 나타내게 한 중요배경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서구가 강요한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 대한 무의식적 추

종에서 벗어난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인종적으로 부당한 억압을 받아왔던 제3세계, 유색인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새롭게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이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족의 복식을 도입하는 폭 넓은 수용의 태도나 여러 나라의 스타일이 동시에 혼합되는 다국적 스타일이 등장하는 등 민족적 측면에서의 탈 중심화 현상으로 패션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III.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변화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21세기 패션에 있어 복식착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민족적 측면에서의 탈 중심화를 탈 민족으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고찰하였다. 작품의 선정은 2000S/S부터 2009F/W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중 탈 민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총 305점을 분석하였다. 작품 분석결과 한국·일본·중국 등 동양권,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제3세계권, 서구권, 다국적 이미지가 혼성된 것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동양을 포함하여 기타 소수민족을 제3세계라고 통칭하게 되나 21세기에 들어와 동양 이외의 다양한 소수민족의 복식이나 문화를 수용한 탈 민족적 패션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를 따로 구분하였다.

1. 동양문화의 수용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반영하는 다문화적인 태도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 중심의 패션경향 속에서 동양문화의 수용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2007S/S에 Christian Dior은 일본 전통의 가부키 메이크업과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색상과 문양의 드레스로 표현하였고, 특히 일본 전통의 종이접기 방식인 오리가미 형태를 의상에 접목시켜 표현함으로써 비서구적 문화와 기법을 새로운 미적요소로 수용한 쿠티르 드레스로 전개시키기도 하였다. <그림 1> 역시 일본 기모노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것으로 기모노의 오비벨트는 원피스의 가슴부분으로 위치 전환되고 벚꽃자수를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했고, 2006F/W에 Just Cavalli는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전개하였는데 <그림 2>는 짧은 상의로 변형한 기모노와 오비벨트를 타이트한 스키니 진과 함께 연출함으로써 기모노의 현대적 해석을 나타냈다. <그림 3>은 풍성한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가는 주름과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된 우아한 이브닝드레스로 재해석되어 표현된 것이다.

또 Jean Paul Gaultier의 경우 여러 시즌에 걸쳐 인도의 풍부한 미학적 유산을 테마로 컬렉션을 개최하였는데, <그림 4>는 터번과 인도 사리를 이용하여 우아한 쿠티르 드레스를 표현한 것이고, <그림 5>는 인도 복식에서 폭이 넓은 바지의 일종인 주디다르를 이



<그림 1>
Alessandro Dellacqua,
2008S/S



<그림 2>
Just Cavalli,
2006F/W



<그림 3>
이영희,
2007F/W



<그림 4>
Jean Paul Gaultier,
2008S/S



<그림 5>
Jean Paul Gaultier,
2002S/S

용하여 스포티한 캐주얼웨어로 나타낸 것으로 디자이너 특유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중국적인 이미지의 경우 과거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환상과 미지의 중국이 아닌 현실적인 시장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의 문호개방과 함께 부상하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부각, 또 <화양연화>와 같은 영화 등이 국제무대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적인 이미지가 대두되었고(김선영, 2006), 이러한 영향 아래 2000년 이후 서구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중국을 테마로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전통복식인 치파오의 형태나 차이나 칼라, 사선의 여밈 장식 등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와 타이트한 실루엣, 화려한 색감과 문양, 중국 경극풍의 메이크업 등 세부적인 장식요소를 직접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현대패션에 있어 가장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하겠다. <그림 6>은 중국 전통의 화려한 용문이 자수된 변형된 치파오 드레스로 에스닉한 분위기와 여성적인 관능미를 동시에 갖게 하였고, <그림 7>은 2008S/S에 히피 스타일과 레트로, 동양적인 요소를 믹스 앤 매치한 Prada의 작품으로 중국 전통의 청삼을 변형한 의복 형태와 아르누보풍의 프린트로 직접적인 민족문화의 표현이라기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문화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중국 전통복식이나 장신구, 화장 등의 모티프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 표현되는 이미지들은 탈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한 방식이라 하겠다.

또 서구복식에 동양적 감성과 정서를 부여하기 위해 동양복식의 독특한 소재나 문양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나타냄으로써 상호통합과 발전적인 관계를 이

루기도 한다. 특히 한자와 같은 동양문자를 상징적으로 차용하기도 하는데, <그림 8>은 한자 모티프를 프린트한 드레스이고, <그림 9>는 수묵화의 번지는 듯한 기법과 함께 한글을 프린트한 것으로 추상표현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의 수용은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한복,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복식인 사롱 등 서양복식과 달리 평면적인 의복 형태를 특징으로 각 민족의 의복 아이템과 착장방법, 형태,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을 수용하여 현대패션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여행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으로 문화 간 교류가 급속해짐에 따라 서구 세계가 쉽게 접촉하지 못했던 지역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풍의 요소로 대변되던 동양문화의 수용은 몽골, 티베트, 부탄, 캄보디아 등 보다 다양한 국가나 민족의 전통복식의 문화요소들을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표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차용에서부터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담아내려는 적극적인 표현은 서구문화 이외에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제3세계 문화의 수용

과거 패션에서의 주류는 이미 문명화된 서구들의



<그림 6>
Yves Saint Laurent,
2008S/S



<그림 7>
Prada,
2005S/S



<그림 8>
Giorgio Armani,
2007S/S



<그림 9>
이상봉,
2005S/S

미하였고 비주류는 서구인들이 그들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다문화주의를 나타내는 오늘날에는 비주류가 주류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 대한 영감으로 재해석된 에스닉이나 이국취향과 같은 테마는 세계 각지의 이국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한 동경과 정보의 확산 등에 기인하여 아프리카, 중동, 남미와 같은 제3세계 문화권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민속의상이나 토착적, 지역적 특성을 빌려와 그 원래적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고정된 인식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차용의 방식으로 탈 민족적 경향을 나타낸다.

아프리카의 경우 원시부족의 바디페인팅이나 헤어스타일, 동물문양을 이용하거나, 아프리카 전통장신구의 대담하고 화려함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현대 패션과 접목시킴으로써 탈 민족적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10>와 같이 드레스의 뷔스티에 부분에 표현된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가면형상은 의복 구성요소와 장식선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유희적인 이미지까지 나타내며, <그림 11>은 원시부족의 바디페인팅이나 장신구의 이미지를 갖는 문양을 드레스 전면에 콜라주하여 문양화하고 부풀린 헤어스타일로 아프리카 원시토속적인 이미지를 갖는 쿠튀르 드레스로 나타내 비주류문화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007F/W에 Balenciaga 역시 <그림 12>와 같이 록(Rock)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프린트와 컬러, 비즈, 메탈 프린지 장식의 믹스 앤 매치로 탈 민족적인 다문화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2009S/S에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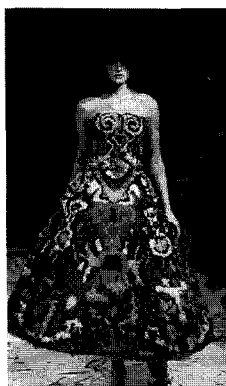
Vuitton은 <그림 13>과 같이 쇼걸의 이미지에 깃털을 이용한 프린지 스커트,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장신구들을 혼합하여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문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2001년 9월 9. 11테러로 전 세계가 비기독교인 이슬람교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패션 역시 이들의 복식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카프탄 스타일의 의복 형태나 이슬람 여성들의 차도르, 히잡, 부르카와 같은 아이템을 활용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그림 14>는 모자와 연결된 반투명의 베일로 블랙 시스루 의상과 함께 이슬람 특유의 보수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2002S/S에 Yohji Yamamoto는 <그림 15>와 같이 험령하고 부풀린 바지 스타일로 발목부분에서 조이는 샤흐와르(Shalwar)와 하렘 팬츠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였고, 2004F/W에 John Galliano는 금, 은,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으로 가슴, 귀, 손, 머리 등을 장식하는 이슬람 국가 예멘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남미 라틴계의 문화는 판초와 같은 복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나초(Nacho)와 타코(Taco)와 같은 음식, 탱고나 살사와 같은 라틴 음악 등으로 세계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서 남미 라틴의 문화를 수용한 패션의 형태는 판초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고대잉카문명의 고대유물을 연상시키는 남미 특유의 광물이나 인디오들의 깃털 장식을 이용한 장신구들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6>은 화려한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2004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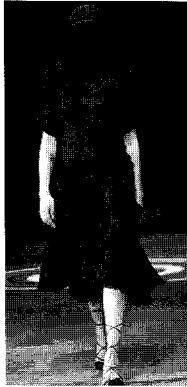
<그림 11>
Franck Sorbier,
2008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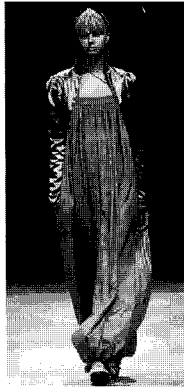
<그림 12>
Balenciaga,
2007F/W



<그림 13>
Louis Vuitton,
2009S/S



<그림 14>
Alexandre Herchovitch,
2003S/S



<그림 15>
Yohji Yamamoto,
2002S/S



<그림 16>
Alexander McQueen,
2005F/W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2004F/W



<그림 18>
Christian Dior,
2005F/W

원색의 색상과 기하학적 문양을 활용한 전통직조기법을 활용한 판초를 대중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데님 팬츠와 함께 연출시켜 다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7>은 인디오들의 전통장신구 중의 하나인 챙이 넓은 모자인 솜브레로(Sombrero)를 연상시키는 깃털 장식의 모자와 함께 연출된 쿠튀르 드레스이다. <그림 18> 역시 2005F/W Christian Dior의 오프쿠튀르 작품으로 원색의 컬러와 라틴계 특유의 러플 스커트와 짐시풍의 헤어스타일, 남미 인디오들의 전통직조를 이용한 술 등으로 연출되었다. 고급문화의 취향을 대변하는 오프쿠튀르 작품에 있어 이와 같이 비주류의 민족문화를 활용한 것은 다문화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타자의 영역에 놓였던 것들에 새로운 미적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탈 민족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하겠다.

3. 서구민속품 이미지의 수용

전 세계의 각 민족은 각자 고유의 전통에 따른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민족복식 또는 민속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속의상을 이용하여 탈 민족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이국취향의 스타일은 대개 비기독교 문명권의 이국정취가 풍기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슬람교와 불교와 같은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역 즉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민족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20세기 이국취향의 경향이 동양문화나 원시적 성격을 띠는 아프리카 또는 문명의

이기와는 동떨어진 비주류지역 문화의 단순 차용이나 조합에 의해 표현되었다면 21세기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탈 민족적 패션은 비주류지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품으로 수평이동을 시도하였다는 점(양취경, 김경란, 2005)이라 하겠다.

Christian Lacroix의 경우 프랑스 남부 스페인 접경 지역에서 보낸 유년시절과 관계하여 그의 작품들은 민속적인 요소의 혼성적 표현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9>는 프랑스 아를르 지방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로 기존의 순백 웨딩드레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다문화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또 2001F/W에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스타일을 모티브로 <그림 20>과 같이 강렬한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 2009F/W에 John Galliano는 러시아와 북유럽의 민속의상을 모티브로 하여 컬렉션을 전개하였는데 <그림 21>과 같이 화려한 자수와 테슬 장식, 매달 모양의 액세서리, 썰매를 연상시키는 구두 등 북유럽의 문화는 Galliano 특유의 판타지와 로맨틱시즘을 더해 이국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림 22> 역시 북유럽 특유의 자수 장식 블라우스와 자수 장식의 긴 부츠 등 북유럽을 테마로 작품을 전개한 Peter Jensen의 작품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현대패션은 비주류지역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비롯하여 스페인 그리고 서유럽국가의 각 지역에 따른 민속의상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이는 문화를 바



<그림 19>
Christian Lacroix,
2002S/S



<그림 20>
Christian Lacroix,
2001F/W



<그림 21>
John Galiano,
2009F/W



<그림 22>
Peter Jensen,
2009F/W

라보는 시각에 있어 수평적인 이동을 시도하고 여기에 디자이너 특유의 독창적인 감각과 지금까지의 미국적인 취향에 대해 축적된 다양한 표현양식을 더해 보다 차별화되고 화려한 이미지로 탈 민족적 현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4. 다국적 이미지의 수용

21세기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세계 각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날의 문화는 그것의 내적인 다양화와 복잡성의 결과로서 전통적인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초문화주의적 양상을 보여준다. 즉 문화의 양상은 서로 스며들어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형식과 문화들의 다수를 포괄하여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얽혀져 있다(최성환, 2008). 따라서 이질적인 민족문화의 복식요소들을 융합하여 특정 민족문화나 문화의 의복 스타일로 규정하기 어려운 탈 중심적 특성을 나타내는 스타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Allure의 잡지 편집장인 Linda Wells가 “5년 전만 해도 푸른 눈의 금발모델들이 80% 이상 잡지모델을 했는데 이제 독자들은 그런 것을 진부하게 받아들인다. 여러 인종의 아름다움이 모자이크된 미인이 새로운 이상(“인종모호성 시대 뜬다”, 2003)”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성의 현상은 금발의 서구백인을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여기던 이전 시대와 달리(양숙희, 정세희, 2009) 대중매체나 상업성 광고캠페인, 패션쇼 특히 오트쿠튀르 컬렉션까지 유색인이나 비서구지역 출신 모델을 등장시켜 이들

의 독특한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을 새로운 미적가치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은 동유럽, 스페인, 아랍,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민족의상의 요소들을 모두 혼합하고 이를 Christian Lacroix 특유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장식으로 표현한 쿠튀르 드레스로 소재와 형태, 장식 등 모든 면에서의 다국적 혼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 <그림 24>는 팬츠에는 미국 성조기와 일러스트를 이용한 프린트를 노출된 상반신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바디페인팅하여 단순한 이미지의 차용이 아닌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나 무거운 현실세계에 대한 이슈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많은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Gaultier의 작품에 나타나는 탈 민족적 경향은 비주류의 하위문화적인 요소나 동양문화, 그리고 이들의 혼성을 통해 서구 중심적인 요소를 해체시키고 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인도의 민속적인 요소와 가장 서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코르셋이 혼합된 복식 또는 일본과 남미풍의 에스닉에 서양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것, 인도풍의 장신구에 중국 한자를 넣은 티셔츠 등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탈 민족적 패션을 다수 선보여 왔다(최영옥, 2003). <그림 25>는 2002F/W에 다양한 민족적 요소를 혼합하여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다국적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다.

Christian Dior의 수석디자이너 John Galiano 역시 전 세계의 민속적인 요소와 문화, 전통, 역사적인 것, 그리고 디자이너 특유의 로맨틱시즘적인 요소 등이 결합된 것들의 결합을 통해 경계초월의 다문화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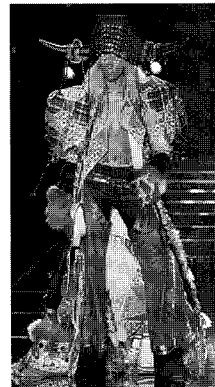
<그림 23>
Christian Lacroix,
2002S/S



<그림 24>
Arkadius,
2004S/S



<그림 25>
Jean Paul Gaultier,
2002F/W



<그림 26>
Christian Dior,
2001F/W



<그림 27>
John Galiano,
2002F/W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그림 26>은 중국소수민족의 장신구와 같은 모자, 데님과 가죽소재로 구성된 가죽카우보이 팬츠, 다양한 소재의 패치워크로 구성된 과장된 볼륨의 코트 등 국적불명의 에스닉으로 다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27>역시 2002F/W 작품으로 동유럽과 몽고, 러시아, 남미, 중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에서 비롯된 많은 영감을 혼합하여 패치워크, 자수, 아플리케 등의 기법을 통해 의상에 표현하였고 메이크업과 헤어 장식,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적인 콜라주의 표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각 국가의 민족적 표현이 융합되어 새로운 조화를 이룸에 있어 형태, 소재, 장식, 연출방식 등 패션디자인의 모든 요소에 걸쳐 보다 확장되고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전역의 고유의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절충하는 다국적 이미지의 탈 민족적 패션은 현대패션의 세계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다른 문화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냄으로써 독특한 각테일 효과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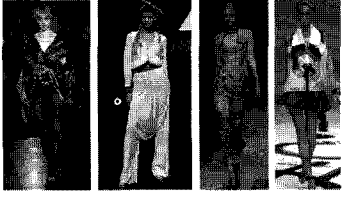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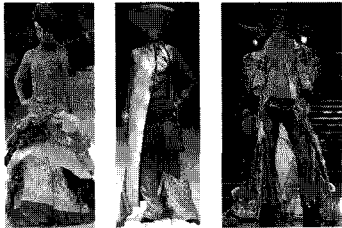
IV. 결 론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성을 대변하는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담론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포스트모던적인 사

유방식은 탈 중심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에 대한 호호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 세계의 문화는 넘치지만 정작 문화의 개념적인 이해는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다. 그 사회와 문화의 직접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적인 요소를 민족적 측면으로 한정하고 21세기 탈 민족적 패션의 경향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적 경향은 동양문화의 수용,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제 3세계 문화의 수용, 서구민속풍 이미지 수용, 다국적 이미지 수용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의 수용은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한복,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속복식인 사롱 등 서양복식과 달리 평면적인 의복 형태를 특징으로 각 민족의 의복 아이템과 착장방법, 형태,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을 수용하고 이를 서로 혼합하여 현대패션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나 일본풍을 위주로 전개되던 동양문화의 수용은 첨단 정보기술과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몽골이나 티베트 등 소수민족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또 표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차용에서부터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담아내려는 적극적인 표현은 서구문화 이외에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표 2>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적 경향

구 분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21세기 패션의 탈 민족적 경향	
<p>동양 문화의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도양의 문화와 복식, 전통요소를 반영 · 과거 일본이나 중국풍의 요소로 대변되던 동양문화의 수용에서 벗어나 몽골, 부탄, 티베트, 캄보디아 등 보다 다양한 국가나 소수민족의 문화와 복식의 이미지를 반영 · 단순한 이미지의 차용뿐만 아니라 동양의 정서와 철학까지 표현함으로써 서구문화 중심에서 벗어난 자국 및 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표현 	
<p>제3세계 문화의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중동, 남미와 같은 제3세계 문화권의 민속의상이나 토착적, 지역적 특성을 이용 · 아프리카의 경우 원시부족의 바디페인팅, 헤어 스타일, 동물문양, 전통장신구의 대담하고 화려함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현대패션과 접목시킴 · 중동권의 경우 카프탄 스타일의 의복 형태나 이슬람 여성들의 차도르, 허잡, 부르카와 같은 아이템을 활용 · 남미권의 경우 판초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고대잉카문명의 고대유물을 연상시키는 남미 특유의 광물이나 인디오톨의 깃털장식을 이용 	
<p>서구 민속풍 이미지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류지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풍이미지를 활용 · 러시아, 북유럽, 서유럽국가의 각 지역에 따른 민속의상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 ·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수평적 이동과 함께 탈 민족적 패션현상의 확대를 시도 	
<p>다국적 이미지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민속적인 요소와 문화, 전통, 역사적인 것, 그리고 디자이너 특유의 감각 등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경계초월의 다문화적인 이미지를 표현 · 서로 다른 각 국가의 민속적 표현이 융합과 함께 형태, 소재, 장식, 연출방식 등 패션디자이너의 모든 요소 역시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자유롭고 독창적인 각테일 효과를 표현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양에 대한 영감으로 재해석된 에스닉이나 이국취향 외에도 문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아프리카와 같은 테마를 통해 원시자연의 이미지나 자연으로의 회귀본능 등 물질문명의 이기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와 감각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중동의 이슬람 문화나 남미 지역에 이르기까지 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의 민속의상이나 토착적, 지역적 특성을 빌려와 그 원래적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고정된 인식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차용의 방식으로 탈 민족적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패션에 있어 고급문화의 취향을 나타내는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통해서까지 이들의 복식이나 문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전개되어 탈 민족적 패션의 확대된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현대패션은 비주류지역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유럽국가의 각 지역에 따른 민속의상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이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원론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관점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수평적인 이동을 시도한 것이며, 여기에 디자이너 특유의 독창적인 감각과 지금까지의 이국적인 취향에 대해 축적된 다양한 표현양식을 더해 보다 차별화되고 화려한 이미지로 탈 민족적 현상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21세기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정보의 확산, 세계 각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단일민족의 복식문화나 단일지역문화의 특성을 현대패션에 절충하고 혼성시키는 양상보다는 다수의 이질적인 민족문화의 복식요소들을 융합하여 특정 민족문화나 문화의 의복 스타일로 규정하기 어려운 탈 중심적 특성을 나타내는 스타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 민족적 패션은 현대패션의 세계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다른 문화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냄으로써 독특한 카테일효과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 오늘날 현대패션이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탈 민족적 패션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1세기 탈 민족적 패션의 경향은 과거 식민지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서구사회 이외 지역에 대한 관점을 그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독립적 미적표현의 기체로서 서양과는 다른 동등한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고유 민족으로의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세기 포스트모던 패션에 있어 이질적인 타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절충적인 양식이 이국취향이나 에스닉, 오리엔탈, 프리미티브, 포플로어 등의 스타일로 표현되어 패션에서 타자성의 인식을 나타냈다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패션의 경우 서구중심의 사고체계가 아닌 각 지역의 전통성과 독자성을 중심으로 서로 융합되고 조화되어 보다 동등한 수평적 관점에서 서구와 비서구의 다양한 문화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강한 다원적 특징을 나타냈다. 즉 동양을 포함한 제3세계의 복식뿐만 아니라 서구의 민속의상을 포함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민족과 민속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융합하고, 단일하고 고정적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며 전통적 패션원리를 해체하는 탈 중심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패션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돌파구이며, 독창적인 패션스타일을 전개하기 위한 자유로운 발상이며 표현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용하여 창작디자인

의 전개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의 민족적 특성을 나타낸 탈 민족적 패션의 경향 속에서도 한국 전통복식이나 문화를 이용한 서구디자이너들의 작품 전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디자이너들의 세계 무대 진출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으로 우리 전통의 복식문화나 고유한 민속문화들이 널리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션의 무대에서 그 활용도가 미흡함이 앞으로 한국 패션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또한 한국적인 이미지만을 추구하기보다 다양한 문화와의 절충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화될 수 있는 디자인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유진. (1997). *오리엔탈 룩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정숙.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 중심화의 표현형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275-284.
- 김서연, 박길순. (2001). 1990년대 후반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 *복식문화연구*, 9(6), 75-86.
- 김선영.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차이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220-233.
- 김수경. (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3), 387-403.
- 김윤주. (1998).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아, 정현남, 염혜정. (2005).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23-34.
- 김지연, 이경희.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9-16.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1997). *현대사회의 다문화주의*. 윤진역 (2002). 서울: 한울.
- 맨프레드, 프랭크. (1989). *신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김윤상역 (1998). 서울: 인간사랑.
- 박명희. (1999).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주, 은영자. (1999).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 259-282.
- 신승환. (1999). 탈 중심의 문화론. *성평등연구*, 3, 7-40.
- 양승희, 정세희. (2009).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인트라컬추럴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59(1), 119-135.
- 양희영, 양승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4(4), 538-548.
- 양취경, 김경란. (2005).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3), 33-51.

- 윤호병. (1992). *후기구조주의*. 서울: 고려원.
- 이정후. (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인종보호성 시대 뜬다. (2003, 12. 29).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09, 8. 2, 자료출처 <http://www.munhwa.com>
- 임영자, 김선영. (2000).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50(4), 37-51.
-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5), 113-134.
- 정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 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현숙, 양숙희. (1997).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502-515.
- 조정남. (2007).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 6-16.
- 최성환. (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287-310.
- 최영옥.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453-464.
- 최혜정. (1999).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호정. (2006).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 *복식*, 56(9), 127-142.
- 최호정. (2007).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복식*, 57(4), 159-172.
- Barber, B. R. (1993). Global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Ethnic and Policy Journal*, 10, 47-55.
- Gates, H. L. (1993).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 11, 12-20.
- McGuigan, J. (1999). *Modernity and postmodern cultur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Pieterse, J. (1984).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ternational Society*, 9(2), 167-177.